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吉林朝鲜文报综合新闻

길림신문

2026 년 3 월 3 화요일 음력 1 월 15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鲜文报 제 6145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호옥정 제 33 회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준비작업 전문주제회의 사회

경기 준비작업 정성껏 잘 추진하여 길림 빙설경제 발전에 힘 실어줘야

2 월 28 일,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은 제 33 회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준비작업에 관한 전문주제회의를 사회했다. 그는 길림성 당위와 정부 업무보고 청취 시에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전 성 량회 배치를 실행하며 '빙천설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해 경기 준비작업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작업계획을 더욱 강화하며 경기 조직을 철저히 하고 정책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지원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등을 통해 길림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간, 김육휘, 고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제 33 회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준비 전문 업무에 대해 심의하고 다음 단계의 업무를 배치했다.

호옥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 33 회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의 길림성 개최가 확정된 후 장춘시는 주도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리행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비작업이 강력하고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동계운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길림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상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요한 기회를 다잡으며 대상(项目)화와 공정화의 방식으로 제반 준비작업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작업 진도와 성과가 예상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호옥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준비작업 전 과정의 업무 목록을 정리하고 성급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결책 절차를 더욱 최적화해 제반 중점 업무가 일찍 가동되고 일찍 실행되며 일찍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 직속부문의 직능 역할을 잘 발휘하고 경기장 개조 등 중점 업무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순조로운 경기 개최를 확보해야 한다. 정책 자원을 통합·집성해 준비작업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자원과 력량을 집중해 제반 업무를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 성화 봉송 등 대형 행사를 잘 기획해 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기 분위기를 짙게 해야 한다. 선전 방안을 더욱 최적화하고 각종 미디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길림 특색을 부각시킴으로써 길림의 독특한 빙설 매력과 좋은 발전 이미지를 더욱 잘 보여주어야 한다. / 길림일보

길림성 5 갈래 고속도로 공사 전면 재개

3 월말까지 전 구간 정상 가동

2 월 28 일, 길림성고속도로그룹의 2026 년 고속도로 대상 업무 복귀 동원 회의에 따르면 길림성에서 건설중인 장춘도시권 서부순환도로, 백산-림강, 송강하-장백, 방천-훈춘, 로야령-왕청 등 5 갈래 고속도로가 전면 업무 복귀에 들어갔다. 관건 일터의 일군 전원이 일터에 복귀하고 시공 준비가 완료되였는바 봄철 시공 황금기를 바짝 틀어쥐고 공사 추진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3 월말까지 전 구간 만부하 운영 실현을 확보한다.

이 5 갈래 고속도로는 길림성 도로망의 단점을 보완하고 골격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공사로서 현과 현 사이에 고속도로가 통하는 '마지막 1 키로메터'를 해결하는 관건적인 수단이며 더우기는 길림의 전면 진흥을 위해 봉사하고 교통강성 건설을 다그치는 핵심적 버팀목이다. 대상의 주선 총거리는 450.895 키로메터, 총 투자 규모는 565.28 억원에 달하며 2026 년에 건설 설치비 105 억원을 완수할 계획이다. 준공후 전 성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한층 더 보완하고 지역의 교통 통달 능력을 제고하게 된다.

년도 목표의 고효률 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 기간에 안전제일, 품질근본의 건설 원칙을 엄격히 지켜 품질 안전 책임을 다지고 품질 안전 최저선을 엄수하며 중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하며 '첫 시작이 바로 결전'이라는 난관돌파 자세로 1 분기 '첫출발'의 가속 버튼을 눌렀다.

길림성고속도로그룹은 5 갈래 고속도로의 량질 건설을 기한내에 전력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제적인 건설 성과로 길림의 전면 진흥을 위해 교통 선행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길림일보

리동호위원 :

특색산업 육성하여 변강의 경제 발전 떠밀 터

"전국정협 위원으로서 곧 열릴 전국 '량회'에서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사명은 영광스럽고 책임은 무겁다는 것도 깊이 느낀다."

2 월 25 일, 전국정협 위원이며 주정협 부주석이며 연변대학 리학부 화학과 교수인 리동호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년간 고향 연변의 청산록수에 초점을 맞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제안을 다수 제시해왔다. 올해에도 그는 이 분야의 관련 제안을 북경에서 열리는 전국 '량회'에 제출해 특색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장백산맥의 풍부한 식물자원이 변강 발전의 끊임없는 동력이 되게 할 계획이다.

연변은 장백산 내지에 위치해있어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특유의 중약재 자원과 희귀약재 재배(양식) 조건을 갖추고 있다. 리동호는 이러한 우세를 기반으로 연변의 인삼산업 발전과 현지 중약재의 연구 및 활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지역 자원의 장점을 산업적, 경제적 리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수년간 국가급, 성부급 및 대학과 기업 협력 연구과제 40 여건을 주도했고 SCI 론문 120 여편을 발표했으며 발명특허 23 건을 취득했다. 발명특허중 1 건은 성과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연구에 몰두하는 동시에 리동호는 정협 위원으로서의 직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조사연구를 통해 전국 '량회'에서 〈인공 재배 인삼의 5 년 이하 재배 기한 제한을 철폐할 데 관한 제안〉, 〈홍삼을 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시키는 시범 사업에 관한 제안〉, 〈길림성에서 홍삼을 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시키는 시범 연구에 관한 제안〉 등을 제출했으며 관련 부문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얻었다. 2023 년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동시에 공고를 발표해 인삼의 인공 재배에 대한 5 년 이하 제한을 폐지했다. 2024 년 5 월 1 일부터 인삼을 건강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삼 가공 제품 개발과 건강식품 연구개발이 더욱 촉진되였으며 이로부터 인삼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동호는 연변의 천연자원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 특산 약재와 식약동원 물질이 더 넓은 분야와 폭넓은 범위에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지난 1 년간 마을과 공장, 기업을 직접 찾아가 간담회를 열고 프로젝트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다양한 조사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왔다. 2026 년 전국 '량회'를 앞두고 리동호는 각종 자료를 정리하며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더 많은 특산 약재와 식약동원 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의약산업 발전의 자원 장벽을 계속해서 허물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또한 연변의 우수한 식물자원이 더 많은 기층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리동호가 최근 몇년간 꾸준히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그는 관련 부문에 림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고 대중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중약제와 중의학적 기술을 마을 보건소 및 향(진)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기초의료 봉사를 리용하는 주민들이 '집앞'에서 고품질의 중의약 써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들의 건강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정협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국가의 중대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리동호는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을 유지하며 국가발전과 동북 진흥, 민생실사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사업 실정과 변강 민족지역의 특색 발전 수요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건언헌책함으로써 지역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인민넷 – 조문판

최해양위원 :

문화의 상호 보완과 전승, 취업의 새로운 동력

다민족 상호보완형 사회구역은 하나의 신형 사회관리 형태로서 다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지내며 민족관계 심층 융합을 추동한다. 귀주의 전국정협 위원이며 귀주민족대학 부교장인 최해양은 장기적으로 민족 융합과 소수민족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다. 북경에 가서 회의에 참가하기 전 그는 소수민족지역에 깊이 들어가 조사연구를 진행, 상호보완형 사회구역 군중들의 생활취업 정황을 료해했다.

금남부이족묘족자치주 평당현 극도진의 '중국천안'풍경구에서 다민족 특색이 융합된 '팔음탄창(八音弹唱)'이 열정적으로 공연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중국천안' 대상건설에 의존하여 극도진은 3 개 이전안치 주택단지를 형성했다. 이런 단지에는 한족, 부이족, 투쟈족 등 여러 민족 군중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민족 상호보완형 사회구역이다.

투쟈족 처녀 양소운은 2019 년 성계가원 안치구역으로 이주했다. 이주후 그녀는 안치 주택을 리용하여 호텔을 열고 부이족 전통 '팔음탄창'을 주동적으로 학습하여 풍경구 일상 공연에 참여했다. 현재 그녀 가정의 년수입은 25 만원에 달한다. "'중국천안'이 건설된 후 우리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였다." 양소운은 기자에게 "우리는 '팔음탄창'으로 천안을 소개하고 평당의 국지중기(国之重器)를 이야기하며 관광객들과 함께 우주의 광활함을 느낀다."고 소개했다.

이곳에 이주한 군중들은 편안하게 거주할 뿐만 아니라 문화 융합을 통해 락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최해양위원은 "오늘 저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그녀들이 '팔음탄창'이라는 전통적인 예술형식으로 '중국천안'의 이야기를 하고 이주후의 새생활을 보여준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귀주에는 190 여만명의 타지역 빈곤부축이주 군중이 있는데 과거에는 한 마을이 한 민족이였지만 지금은 묘족, 한족, 부이족 등 여러 민족이 한사회구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상호보완형 사회구역 발전의 생동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사연구 과정에 최해양은 문화의 상호 보완과 전승이 취업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였음을 발견했다. '중국천안'풍경구 무형문화유산 관광체험 공간에서 사업일군 양승표는 융합혁신 아주도자기기예(牙舟陶技艺)를 전시했는데 "전통적인 아주도자기는 록색이지만 이제 우리는 부이족 랍염 요소를 결합하여 다양한 색상의 도자기를 구워내 관광객들 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 무형문화유산 체험 공간은 작년 6 월에 설립되여 현지 군중들의 취업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주 군중들에게 '향수'를 남겼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 공간의 수익은 약 80 만원을 실현했고 5 만명 넘는 군중들이 체험에 참여했다. 최해양은 현재 아주도자기는 부이족, 묘족 등 여러 민족의 문화 상징을 융합시키고 '중국천안'의 류입 효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주 가정의 젊은 세대가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문화 전승, 기술 보호와 현지 취업을 촉진함에 있어 모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극도진에서는 이미 30 여명의 이주 군중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400 여명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실현했다. 최해양은 "성당위, 성정부는 타지역 빈곤부축이주 사회구역의 고품질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특히 다민족 융합 사회구역의 발전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해양은 타지역 빈곤부축이주 사회구역의 산업 지원과 취업 보장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려 향촌 진흥과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위해 건언헌책하게 된다. / 인민넷 – 조문판

권충광위원 :

발전의 내적 소모 타파하고 혁신에너지 활성화시켜야

나는 자산평가에 종사하는 전문인사로서 기업의 최전방에 깊이 들어가 전문적인 써비스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민영기업가의 감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우리가 혁신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업자들이 저가수주전쟁중인데 '제 살 깎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연구개발에 몰두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많은 경영주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분야 정협위원으로서 발전의 내적 소모를 타파하고 혁신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책임이며 "종합적으로 '내적 소모식 경쟁'을 정돈하고 신질생산력에 적합한 체제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2025 년 직무 수행의 중요한 과제로 삼기로 결심하게 되였다.

민영기업의 '내적 소모' 관련 문제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조사없이는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직책 수행 리념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현장에 들어가 목소리를 들었다. 일선 도시에서 현구역 경제권까지, 전통 제조업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까지, 여러 기업을 방문하고 여러차례의 조사연구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으며 다양한 조사연구 자료와 진실한 피드백을 수집했다. 이는 앞으로 나의 후속 제안의 생생한 자료가 되였다.

2025 년 전국 량회 기간, 나는 〈'내적 소모식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새로운 계층 인사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신질생산력과 상호 부합되는 체제기제를 구축해야〉라는 제안을 했고 다원화 평가 체계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혁신 장려 정책 보완 등 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관련 부문의 중시와 응답을 받았다.

공동인식을 응집시키는 것은 위원이 직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명이다. 지난 일년 동안 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을 해독하고 신심을 전달했다. 여러 주류 매체의 인터뷰를 받았고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고수준 대외개방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강연했으며 각계 인사들이 발전 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도록 함으로써 지혜와 힘을 강국건설에 응집시키고 민족부흥의 위대한 로정에 응집시켜 함께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인도했다.

직책 수행 일년 동안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기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로부터 정확하게 조언하고 정책을 제안하기까지, 발전의 공동인식을 응집시키는 데로부터 정책의 락착을 추동하기까지 걸음마다 군중의 기대와 위원의 책임을 담았다.

앞으로 나는 '정치협상을 리해하고 협상을 할 줄 알며 의정에 능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견지하면서 착실한 조사연구, 실무적인 제안으로 기업의 발전 난제 해결에 조력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으로서의 힘을 이바지할 것이다. / 인민넷 – 조문판